고대 일본 ~ 현대일본의 변천과정

# 의복의 변천과정

* 야마토 조정(고훈 시대) : 4세기 무렵부터 박음질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남녀 모두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곧은 소매가 있는 저고리를 입었다. 남성 하의는 길고 주름이 잡힌 ‘모’라는 치마를 입었다.
* 아스카 & 나라 시대 : 불교 도입과 중국문화의 유행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이다. 당나라와의 무역으로 당나라풍의 복식과 염직이 사용 되었다.
* 헤이안 시대 : 일본 역사 중 가장 사치스러운 시대. 일본의 풍토에 맞는 기모노가 만들어졌다. 귀족들의 옷은 명주로 서민들의 옷은 마로 만들었다. 강한 중국의 영향으로 의례, 예법, 복식 모두 당나라식. 황실의 옷은 3가지로 분류하였다. 특별한 의식을 위한 복장, 황실에 격식을 차린 복장, 일반 복장으로 분류되었다. 남성의 황실에 격식을 차린 복장으로는 ‘소쿠타이’ 를 입었다. 약식 예장 – 호우코와 이칸, 평상복 – 노우시 여성의 의복은 여러겹으로 이루어졌다. 쥬니히토에(여성정장) 8~ 25겹으로 이루어졌다. 코우치기 (상류계급 여성의 약식 예복), 가리기누 (귀족 평상복)가 있었다.
* 가마쿠라 & 무로 마치 시대 : 가마쿠라 시대는 헤이 안 시대 때 너무 사치스러워 재정이 어려웠다. 그래서 검소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경우 키누하카마 (명주로 만든 하카마), 키누카즈키 (명주로 만들어 귀부인이 나들이 할 때 머리에 덮던 옷), 츠보쇼우쇼쿠 [壺裝束] (여성용 삿갓)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무사계급인 경우) ‘히타타레’ 를 입었다. 무로마치 시대 대 현대 기모노의 기초가 만들어 졌다.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때는 조정의 관직에 있던 무사(사무라이)계급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소쿠타이’ 를 입었고 일상복은 ‘가리기누’ 를 입었다. 사무라이 계급의 여자들은 평소 고소데 (명주실로 짜여짐) 입었고, 그 당시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우치카케’ 라는 긴 겉옷을 입었다.
* 에도 시대 : 정치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한 시대. 쇄국으로 인해 외래문화의 영상을 받지않고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다. 기모노는 옷깃을 없애고 넉넉하게 입는 세련된 스타일이 유행했다. 남성의 경우 무사계급은 ‘쇼군’을 섬길 때 ‘카미시모’ 라는 겉옷을 입었다. 일상복은 남녀 모두 ‘고소데’ 와 ‘하카마’ 를 입었다. 그리고 무사 계급의 남자가 옆에 칼을 차는 ‘오비’ 라고 하는 긴 천을 허리에 묶는 것이 관습이 있다. 여자의 ‘오비’는 조금씩 넓어지고 화려해졌다. 에도 말기에 40센치가 넘게 넓어졌다. 일반 서민 여성은 에리모토(옷깃)나 에몬(갓 섶)을 느슨하게 해 요염하게 입었다고 한다. 에도 시대 초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옷을 입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성은 ‘우치카케’ 를 입었다. 하지만, 평소 입는 옷도 매력적으로 염색한 소재와 아름다운 무늬의 우아함을 표현하여 점차 더 멋있어졌다.
* 메이지 시대 : 군인, 경찰, 우체부와 같은 공무원들을 위해 양식 제복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의복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메이지 초에도 기모노를 입었다. 공식적인 행사에 남성은 주로 ‘하오리’ (전통적인 마고자) 와 ‘하카마’ 를 입고 서양식 모자를 썼으며, 일부 여성들은 일본식 복장과 다르게 서양식 부츠를 신었다. 기모노와 부츠의 복합적인 일본, 서양식 스타일은 오늘날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젊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 다이쇼 : 양복이 일반화되면서 성별, 계층별 의복의 차이가 뚜렷해졌다.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는 것이 의무적이 되었다.
*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 : 기모노도 서양적인 색깔과 무늬를 사용했다. 오비 30센치 길이 4미터로 지금과 동일한 크기다. 여성의 정장 쿠로치리벤, 쿠로하부타에, 쿠로토에소데가 있고, 남성 정장은 검은 문양 하오리, 하카마가 있다.
* 쇼와 시대 이후 (현대) : 남자의 옷은 전반적으로 서구화가 되었다.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복장은 양복이 되었고 일하는 여성들도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도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했다.